

제주사회복지신문

>2016년 1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99호

신년 축시

품는, 깊이 품는

-丙申새해에 띄우는 노래

東甫 김길웅
시인 · 본지 편집위원

동물원에서 보았다
별 좋은 날
새끼 품고 앉아
털 헤치며 이 잡아주는
원숭이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주인 없는 사이
아기 돌보는
원숭이

상대를 쓰다듬으며
키득거리는
따뜻한
그들만의 첫
서로 인정하며
사랑하는 서로 간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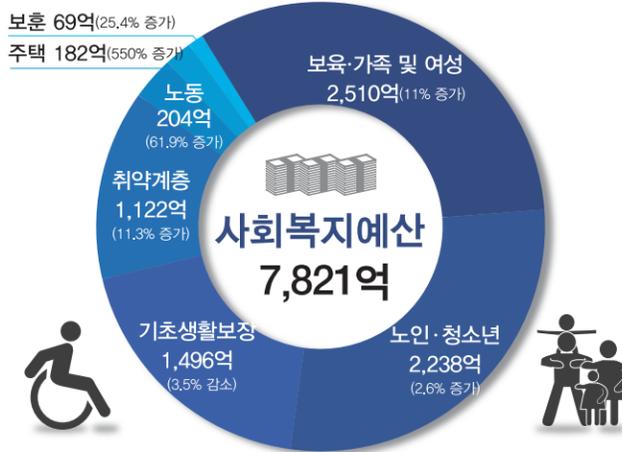
죽은 새끼 품고 다니는
끔찍한 모성

놀라고 놀라네
거토록
품는, 깊이 품는.



2016년도 사회복지예산 7,821억

지난해보다 612억 증가... 전체 예산 대비 19.1%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괄호 안은 2015년 예산 대비 증감률,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이 지난해 보다 8.49% 늘어난 7,821억으로 편성됐다. 도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지난해 18.9%와 큰 차이가 없는 19.1%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예산 4조1,028억 가운데 7,821억으로 19.1%를 차지해 분야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보다 612억 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전체 예산대비 19.1%라는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평균 25.4%(순계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로, 여전히 도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신규 복지사업이 크게 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기도 하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1,496억(54억 하락) ▲취약계층 1,122억(114억 증가) ▲보육·가족 및 여성 2,510억(249억 증가) ▲노인·청소년 2,238억(57억 증가) ▲노동 204억(78억 증가) ▲보훈 69억(14억 증가) ▲주택 182억(154억 증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맞춤형 급여체계의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예산 일부가 주거급여 형태로 주택분야에 편

입된 것으로 본다면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노인·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63%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체감도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신규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사업이 꼽힌다. 앞으로 4년간 1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인 이 사업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운영, 성인지관점 도시 기반 시설 추진 컨설팅, 청장년 여성교육, 제주형 수놓음 육아나눔터 등에 올해에만 약 3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귀포 지역의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신규편성됐다. 서귀포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비용으로 45억, 서귀포시장에 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운영에 1억7,500만원,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도 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그 외 신규증액사업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12억, 고용센터 청사 매입비로 42억 등이 편성됐다.

고품질 저비용
필요한 기능만 갖춘
KAIYANG 휠체어

2010 아시아 장애인 대회공식후원
Side Wheelchair Supplier Of
2010 Asian Para Games
전제품 노후된 탄력있는 생고무 제품
튜브처럼 탄력 있으며 공기주입필요없음

www.wymed.co.kr
www.bestlifeplus.com

홈케어베드 Home Care Bed

노인전문병원, 산부인과, 요양병원에 맞는 맞춤형 침대

Electric Hospital Bed

- CPR기능(빠른 수평 복원)
- Trendelenburg기능
- Auto chair기능

- 등받이, 무릎 높낮이 조절
- 소형 백업 배터리 내장
- 정전이나 이동시에도 안전하게 구동

제주총판 세명메디칼(주) 담당 과장 문형돈
TEL. 064. 721. 1861

수입원 (주)우양메디칼
판매원 (주)엔도젠
Medi & Healthcare
제주총판 세명메디칼(주)



김치로 따뜻한 금융 심는다

신한금융그룹 제주은행과 함께하는 나눔봉사 열려

신한금융그룹이 후원하고 제주은행(은행장 이 동대)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한 '2015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가 지난 11월 28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앞마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도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김장김치를 나누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김장 나누기 행사에는 신한금융그룹 100여 명의 직원(신입직원 25명)들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봉사자들이 직접 김치를 버무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담긴 김장김치는

모두 1200여 포기로 청 소년 시설, 독거노인 지원센터, 복지회관 등을 통해 400가정에 3포기씩 나눠졌다. 김치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제주은행의 한 직원은 "추운 날씨였지만, 모두가 함께 뜻깊은 김장김치 행사를 위해 봉사에 참여하니 매우 뿌듯했다"며 "오늘 담긴 김장김치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사회복지기본조례·장애인주차조례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2월 22일 열린 제336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유진의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강익자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보장위원회,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회복지시설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유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포함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및 운영비의 보조, 장애인우선채용, 시행규칙 등을 담고 있다.

1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2016년 신년 인사회	• 노인강령 낭독 및 합동 인사회 • 합동 신년인사, 새해 덕담인사 • 만세삼창, 시루떡 절단식	5일(화) 11시 대한노인회도연합회 2층 대강당	721-511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2016년 여성지도자 신년하례회	• 2015년도 여성단체 활동 영상물 상영 및 신년인사	8일(금) 11시~13시 메종글래드제주 연회장	744-473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신년인사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식	• 새해인사말씀, 기념사 • 유공자 시상 • 참가자 교례 • 경품추첨 • 오찬	12일(화) 11시~13시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702-3784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찾아가는 여성취업 지원 상담실 운영	• 취업설계사가 찾아가 취업상담실 운영 • 구인·구직 상담서비스, 취업서류컨설팅, 면접 이미지메이킹, 이력서사진무료촬영 등 부스 운영	20일(수) 14시~16시 외도부영아파트	753-8090
	새일찾기 준비프로그램	• 구직희망여성 대상으로 나의 특성 강점 발견하기 • 선호하는 직업 찾기(직업선호도검사 S형) • 진로설계 및 취업전략 세우기 • 취업지원 받기(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클리닉, 동행면접)내용으로 취업대비 교육 실시	25일(월)~29일(금) 9시 30분~13시 30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나눔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2월 기탁 현황

- ▲금강수산유통=냉동해물 32kg ▲금강축산유통=돈육 72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193개 ▲대성냉동=떡국 100kg ▲도담도담=3분카레 402개 ▲도청존샘봉사회=김치 160kg ▲동광효도마을=감귤 1,120kg ▲동원F&B제주=동원식품 5,023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413개 ▲신화유통=고추장 등 234개 ▲아라어린이집=쌀 200kg, 통조림 200개 ▲오뚜기제주지점=라면 등 2,301개 ▲유원펍프카=3분카레 500개 ▲윤진호정형외과=쌀 1,500kg ▲이든이네=건멸치 19kg ▲자연드림이도점=빵 550봉 ▲제주보리촌=보리빵 610개 ▲제주은행=김치 400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L×6)200팩 ▲제주시청=쌀 800kg ▲참살이정육식당=돈육 14kg ▲클럽카메론=쌀 480kg ▲행복나눔마트=세탁세제 59개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1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1,110,000	0
난치병환아후원	110,000	0
자원봉사후원	735,000	705,000
복지사업후원	1,395,000	1,427,900
푸드마켓후원	10,090,016	3,341,93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인: 고경윤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편집디자인: 디자인열림

용담2동·표선면 최우수 협의체 선정

제주도, 15곳 읍면동 우수 복지위원협의체 평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1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2015 제주지역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15곳을 우수협의체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협의체에는 용담2동과 표선면이, 우수 협의체에 제주시 일도2동과 이도2동, 아라동, 노형동, 서귀포시 성산읍과 안덕면이, 장려 협의체로는 제주시 연동, 건입동, 한림읍, 구좌읍과 서귀포시 동홍동, 영천동, 정방동이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일선 복지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위기가정

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의 연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사회복지전문가 등 5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정기기부업체 협약체결건수, 저소득층 복지서비스지원연계건수 등 협의체 운영실적과, 읍면동 협의체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들여다봤다.

금번 최우수로 선정된 제주시 용담2동의 경우 복지위원 협의체뿐만 아니라 관내 자생단체 및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용담

골 수놓음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모금활동과 재능 기부활동 전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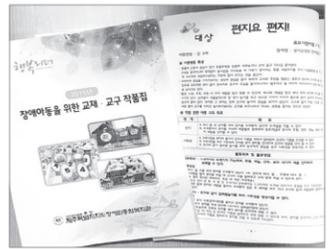
또한 서귀포시 표선면의 경우 표선면 백사봉사단을 조직해 위기가정 방문, 취약계층 사례관리 등 정기적인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특히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보살핀 결과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최우수상에는 각 200만원, 우수상에는 각 100만원, 장려상에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장애아동 위한 교재·교구 작품집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이 장애아동의 교육에 쓰일 교재·교구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도내 어린이집 교사의 장애아동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위한 교재·교구작품공모전」의 내용을 담은 작품집을 발간했다.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는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장애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아동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재·교구를 개발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작품집에는 2015년 공모전의 사업보고 및 이번 공모전에 출품한 26개의 작품과 함께 작년 수상작에



대한 소개가 담겨 있으며, 출판작과 관련된 장애아동의 행동 특성과 교육목표 및 교재교구 제작 방법, 활용방법 등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작품집은 연계기관어린이집 및 도내 통합어린이집 30여 곳에 배포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jejurehab.or.kr) 전자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정식 출범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아인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대표 최영열)가 지난 달 23일 정식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일 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나래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그룹홈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자신이 중심이 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목표를 밝혔다.

관광약자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원보드’ 무료 배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 접근성안내센터(센터장 고현수)는 지난 12월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보드’를 제작,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케이션 지원보드’란 청각 및 지적장애인과 의

사표현이 어려운 관광약자(외국인 포함)들이 제주 관광지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안내서이다. 보드의 내용은 제주지역 관광사업체(관광지, 숙박지, 음식점)에서 주로 쓰이는 문장들이 담겨있으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총 4개의 언어로 번역됨과 동시에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로도 구성돼 있다.

고현수 센터장은 “실제 관광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의사

소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약자들이 보다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편안한 제주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지원보드’는 해당 관광지, 숙박지, 음식점 등 관광객이 주로 찾는 장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문의=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1566-4669>

전화 한 통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생계의료수급자 대상 평균 10만원 내외 난방비 지급

저소득가정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이 전화한통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간소화 됐다. 신청대상자들은 각 읍·면·동 담당자와 전화통화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평균 10만원 내외의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은 1월말까지 가능하며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관 부서인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늘던 신청이 12월 들어 줄어든 추이로 볼 때,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거동불편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을 냈다.

이에 산업부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읍·면·동 담당자와

전화 한통만으로 가능하게 간소화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이 1월말까지 한정돼 있어,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직접접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며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전국적으로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8004명이 신청대상자로 선정됐다.

2015 통합문화이용권(문화 더누리 프로그램)

츄츄한 문화더누리

[츄츄한 문화더누리]

중증장애인, 재가 노인 등 외부 출입이 어려운 문화향유 시각 지체에 놓인 복지대상자들의 사연을 신청 받고 재능기부 예술인(단체)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문화교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외부출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재가 노인 및 사회복지기관(시설)대상자
- **신청(추천)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 혹은 추천
-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1월
 - ※희망 2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서 교부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jcaf.or.kr) '문화나눔-통합문화이용권' 메뉴 이용
 - 신청방법 : 이메일(jejuvoucher@hanmail.net)
- **문의처** : 제주주관처[제주문화예술재단] 064-724-9004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후원 : 복권위원회의

JDC, '사랑의 복지차량' 4대 기증

장애인·거동 불편한 노약자 위해 2013년부터 총 12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지난달 24일 JDC 본사에서 사랑의 복지차량 전달식을 갖고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1억 6200만원 상당의 복지차량 4대를 기증했다.(사진)

노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복지차량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도협회, 경천전문요양원, 행복한 쉼터 4곳에 전달됐다.

JDC는 지난 2013년부터 '사랑의 복지차량' 지원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총 12대의 복지차량을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지원했다. 김한욱 이사장은 "복지차량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직결된다"며 "내년부터는 차량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하는 2015 몰래산타 행사



"제주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 전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는 지난달 23일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와 함께 도내 어려운 아동 20여명을 위한 몰래산타 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몰래산타 활동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말을 맞아 지역에 어려운 아동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200만원을 직접 아동들이 원하는 선물을 구매하고, 전달하는 등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10여명의 제주지사 직원

들은 직접 몰래산타가 되어 아이들의 선물을 포장하고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 직접 전달하며 선물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로 도내 위탁아동 등 어려운 아동 20여명은 따뜻한 겨울나기 선물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도내 위탁아동 등 어려운 아동들이 건강하게 가정에서 성장 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후원 및 복지자원을 발굴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푸른꿈 작은공부방 건립 후원금 전달



지난달 23일 제주은행(행장 이동대)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아름다운가게 제주 동문점(공동대표 이유근, 김

국주)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들이 운영하는 '푸른꿈 작은 공부방'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

난 10월 마련한 '제주은행과 아름다운가게의 푸른꿈바자회'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2015 제주 나눔 대축제'의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후원금은 '푸른꿈 작은 공부방'의 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푸른꿈 작은공부방은 10년간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의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을 돕는 공부방이자 쉼터의 역할을 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성황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달 19일 자원봉사자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회장 고충석)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제주시자원봉사센터 및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공동 주관으로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연에도 자원봉사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을 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참여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그림 그리기·글짓기 대회도 함께 열렸다.

또한, 기업들의 자원봉사 활동 공적을 기리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이니스프리, 더케이제주호텔,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패」를 수여했다.

2015 장애인가족 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지난달 4일 메종글래드제주 컨벤션홀에서 도내 장애인가족,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장애아 돌보미, 장애인도우미, 활동보조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사업보고대회 및 장애인가족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한 일년간의 활동과 사업들을 함께 공유하고 정보교류 및 소통, 화합의 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시상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표창(백옥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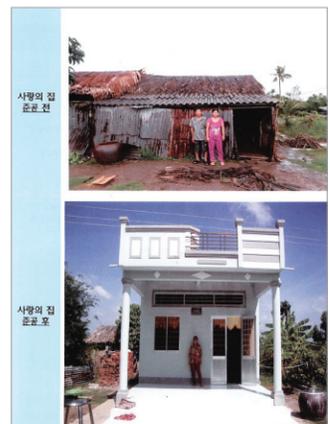
(오미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표창(홍민우),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표창(이준경),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회장 표창(오순미, 변길순, 전석철, 박부선)이 수여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베트남 까마우성에 두 번째 사랑의 집짓기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 신부)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 최서남단 땅 끝마을 까마우성의 극빈층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1채를 마련해 주었다.

제주애덕의집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소액후원금을 통하여 진행된다. 이 기금은 베트남 까마우성 주민(응웬 반 짜엔) 4인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사용됐다.

기금을 전달 받아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펼친 사단법인 평화3000은 "올해



하반기 종전 40주년을 맞은 베트남에 전달된 사랑의 집짓기 30채 중 제주애덕의집이 1채를 후원해 주어 정말 감사하다"며 수혜자 가정을 대신해 인사를 전했다.

서귀포 지역에 5,000만원 상당 겨울내의 지원

쌍방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내의 전문기업 쌍방울(대표 양선길)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푸드뱅크(대표 고치환)를 통해 서귀포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5,000만원 상당의 내의와 양말을 지원하는데 나뉘어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사진)

지난 4일 쌍방울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푸드뱅크를 방문해 내의 1,800여벌과 양말 900여세트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5,000만원 상당의 내의와 양말은 서귀포지역 15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쌍방울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업



활동을 모색하던 가운데 상대적으로 복지취약 지역인 서귀포시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내의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댄스스포츠 대회 연속 우승 쾌거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이 제2회 어르신 댄스스포츠대회 단체전 1위, 제1회 국민생활체육 전도학생 댄스스포츠대회에서 유주연·강정우팀 김대권·오민서팀이 공동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냈다.

한편, 아가의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으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다함께 차차차’를 실시하고 있다.

소/식/마/당

자원봉사자·후원자 만남의날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15일 ‘2015 자원봉사자,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다.

자원봉사자, 기업체 및 후원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만남의 날 행사에서 우수자원봉사자상에 독거노인 밀반찬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김미심씨가, 우수후원자상 부문에는 토마토요양병원이 선정됐다.

팔죽할매와 바보호랑이 뮤지컬 열어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농어촌지역의 아동들이 직접 창작 뮤지컬을 체험할 수 있는 꿈소동 어린이 뮤지컬스쿨 배움터교실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오픈한 꿈소동 뮤지컬스쿨은 연기, 춤, 노래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팔죽할매와 바보호랑이’ 창작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송년의 자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해 한해 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나눠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학부모님 등을 모시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송년의 향연’ 송년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 이날 송년의 자리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느영나영 꽃이되어’ 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함께여서 즐거운 문화체험 참여



혜정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현대자동차(주)제주서비스 센터의 초대로 제주 시내 영화관을 대관해 시설이용장애인, 임직원봉사단, 인솔자와 함께 영화 ‘대호’를 관람했다.

이번 문화체험으로 이용인들은 직무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인 훈련 및 문화시설을 습득, 의사소통 활성화 및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

정혜재활원 송년의 밤 개최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달 23일 서귀포시축산농협 흑한우 명품관에서 ‘2015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2015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송년의 밤’은 2015년 한 해 동안 정혜재활원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다.

생명 지켜주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는 지난달 3일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의 지원으로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종사자와 이용인들이 소화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흉부압박 실습에 참여하여 올바른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제주태고원 찾아 재능기부 활동



제주영락종합복지관(관장 이상언) 소속 어르신 자원 활동가 6080 봉사단이 제주태고원(원장 고금순)을 방문해 즐겁고 신나는 공연을 펼치며 재능기부 봉사를 선보였다.

태고원 관계자는 이날 봉사로 어르신들이 공연이 끝날 때까지 환한 미소를 잊지 않으셨다며 제주 태고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안겨 주신 봉사단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온새미로, 제5회 연합발표회



지역아동센터 동아리 온새미로(늘푸른·이호·우리동네·용담·봉아름) 연합발표회가 지난 11월 28일 제주영상문화예술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 참가한 센터 아동들은 부모님과 지인들을 초청해, 지난 1년간 배워온 합창, 밴드, 바이올린, 앙상블, 연극, 밴드, 민요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온새미로’란 생김새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 라는 뜻의 명칭이다.

시론

다시 새해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최근 뉴스전문채널 YTN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내 노인 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가 100명의 노인들이 사는 마을이라면’이라는 가정으로 노인문제 실태를 보도하였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 36명은 혼자 살고, 32명은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며, 47명은 빈곤선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특히 그 중 10명은 단돈 17만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 또한 100명중 44명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35명은 친한 친구나 이웃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26명은 매번 혼자 식사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고령사회를 노인 보호석과 일반석이 바뀌는 현상으로 비유하며 노인인구 급증을 설명하기도 한다. 물론 구매력 있고 활동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도 눈여겨 볼 부분이기는 하다. 위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100명 중 10명은 공과금을 다 내고도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327만원 이상 된다고 하니 말이다.

OECD기준 노인빈곤율 1위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로, 50%에 가까운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 상태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악화로 이어지기 쉽고, 우울이나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살펴봐야 할 지표가 된다.

최근에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는 하였으나, 경제 불황과 맞물려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

인 해법 마련으로 이어지고 실현될지 걱정이다.

노인의 삶, 우리의 미래

노인의 삶은 곧 우리 미래의 삶이다.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화는 자연스러운 섭리이지만, 미래에 빈곤하고 우울한 삶이 예정되어 있다면 노화의 과정 또한 즐거울 리 없다. 노인문제를 나이 든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아 접근하면 젊은 세대와의 갈등만 초래할 뿐 장기적인 전망과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노인을 문제의 중심으로 보기 보다는 ‘선배 시민’으로 보아 젊은 세대와 상호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만족스러운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다시 새해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한 해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마지막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숙연해진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기고

동절기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이상준
건입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세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될 만큼 복지계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복지사각지대란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영역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지원을 받고 싶어도 법의 조건에 부합

하지 않아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세모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1개월간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인 “긴급지원복지제도”가 있었지만 알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제도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동에서는 세모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철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집중발굴을 위하여 복지협의체, 통·반장, 각자생단체회원등 100여명으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집중발굴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긴급지원과 기초연금 공적지원중지자 및 탈락자, 쪽방·폐가·비닐하우스·

참고·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자’ 등으로 평범하게 이웃에 거주하는 자일 수도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등 공적지원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등은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공적지원 연계로 지속적인 관리, 차상위계층등 대상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후원물품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지원 확대” 등이 있다.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가까이 있는 우리의 관심이다. 올 겨울은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제주시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속히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칼럼

아무리 흔들려도 오래 보아야 한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세월에 유명한 두 편의 시가 던지는 의미가 더욱 다가온다. 한 편의 시는 모든 삶에는 역경이 있고 그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다른 한 편의 시는 지속적인 관심이 있을 때 본연의 모습이 보인다는 뜻이 있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을 보면 이렇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끈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다양한 일을 겪게 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다.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절박한 환경서도 담쟁이덩굴처럼 함께 살아야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친구와의 다툼, 직장이나 사회에서 겪는 수많은 일과 부딪힌다. 일에 따라서는 기쁜 일, 즐거운 일, 굶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등과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은 한없이 흔들리게 된다. 그렇다해도 다잡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며 우리는 이겨나간다.

그런 비·바람이 있기에 나름대로 어려운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산다는 것이 무미건조할 뿐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삶에 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다. 세 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시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

보잘 것 없는 풀 한포기라도 자신만이 살아가는 길이 있다. 이렇듯 모든 생명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 소중하다. 그런데 현실은 남의 삶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밟아버리기 일쑤이다. 각박한 삶은 나만을 위해 달려간다. 어려운 이웃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여유를 갖지 못한다.

관심이 부족하면 좋은 꽃도 예쁜지, 사랑스러운지 보이지 않는다. 어렵고 절박한 환경에 있더라도 담쟁이덩굴처럼 서로 뒤엉켜 당기고 밀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우리 모두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시설탐방

(74)정혜재활원

세상으로 나아가는 장애인들의 작은 올레길

친환경 근로사업장 · 그룹홈 운영으로 당사자 중심 복지 실천

지적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장애인거주시설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가족이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된다'는 원훈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자존을 찾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희망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서귀포시 토평동 인정오름 인근에 위치해 맑은 공기와 경치를 자랑하는 정혜재활원의 설립에는 이원장의 역할이 컸다. 이 원장은 청년시절 성소자가 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간다. 그 후 이 원장은 대구, 서울, 인천, 부산 등지의 노숙인, 장애인, 나환자 등을 돌보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의 길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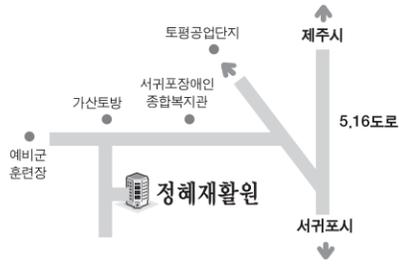
정혜재활원의 설립은 타지 생활을 마친 이 원장이 고향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고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던 중 서귀포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에 복지시설이 부족해 제주시나 육지로 떠나는 현실을 알게 됐다. 그 후 이 원

장은 2002년 법인 정혜원을 설립하고 2005년 서귀포지역에 최초로 정식인가 장애인거주시설 정혜재활원을 개원한다.

정혜재활원은 여러 부분에서 자연과 친하다.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재활원 건물 콘크리트 벽은 인간과 자연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EM미생물 원액 600병을 희석시켜 만들었다. 개원 이후에는 시설 내에서 화학제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EM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적 시설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직업과 올바른 소득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에코소랑도 모두 친환경제품을 생산 중이다. 과실원액, 화장지, 허브차·비누 등을 생산 중인 에코소랑은 허브의 이파리 하나를 수확에서부터, 화장지 한 장을 뽑아 낼 때까지 화학적 약품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다.

또 다른 정혜재활원의 특징은 대



가족과 같은 분위기다. 정혜재활원은 제주 최초로 나이제한 없이 거주인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사는 시도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재활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형과 누나를 보면서, 동생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달받기 때문이다.

정혜재활원은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활효과가 높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독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정혜재활원은 오는 3월이면 체험홈 2곳을



더 운영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장애인들이 재활을 통해 조금이라도 자립가능성이 보인다면, 절대 희망을 놓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항상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30)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고추장 나눔 봉사

몽생이기자단 3기는 지난달 18일 이웃에게 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제주중학교(교장 진성필)를 찾았다.

제주중학교에서는 학부모학교 참여지원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제주 작은 예수의 집'에 기부하는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에 만든 고추장은 특별히 감을 이용하여 만든 고추장으로 단맛을 더했고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나눔의 현장이 됐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어른들에게 우리 전통식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자신이 만든 것을 나눌 수 있다는데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됐다.



제주중의 고추장 나눔 행사는 십여년 동안 전통을 이어왔다. 제주중은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어가 학생들에게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눔을 통해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 협동을 배우고 능동적 시민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계사관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방문하 시면, 기사의 다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28

개인정보보호 II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지난 호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해 알아보겠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상품, 이동통신 등에 가입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사항에 동의를 요구받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동의 표시를 하게 되는데 깨알같이 적혀 있는 내용들에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⑤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정보의 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 그 법정대리인(보통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황인철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홍닥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의 고지가 없거나 미성년자에게 직접 받은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게 된다.

유효한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광고성 문자나 스팸메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민·형사상의 법률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개인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18)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왼쪽부터 도담도담 봉사회, 카카오파머, 아라어린이집,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유원팜프카 원석철 회장이 지난 12월 제주광역푸드뱅크 및 제주사랑나눔푸드뱅크를 찾아 마 음 따뜻해지는 식품 기부활동에 동참했다.

소외계층 향한 따뜻한 식품기부 행렬 '훈훈'

12월 한 달간 9,800만원 상당 한우, 쌀, 식료품 등 물품기탁 이어져

따뜻한 이웃사랑을 식품기부활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린이부터 학생, 어른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는 식품기부소식이 연신 들려온다. 매서운 한파에도, 가슴 한 칸을 훈훈히 데우는 이야기들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뜻깊은 식품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기부자들의 소식을 모았다.

지난달 3일 제주광역푸드뱅크에 커다란 박스들이 도착했다. (사)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맹중)가 연말을 맞아 전달한 기부식품들이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약 300만원 상당의 한우. 협회는 3년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푸드뱅크를 찾아오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클럽카메론 제주지역(지역장 이장복) 회원들이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찾아 식품기부에 나섰다. 이날 클럽카메론 제주지역 회원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쌀 20kg 24포(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또 지난 8일 제주도청 소속 공직자들로 구성된 존샘봉사회(회장 강은숙)도 정성을 전해왔다. 봉사회 단원들은 마음을 가득 담은 국산 김치 160kg을 기탁해 운기를 더했다.

지난달 17일 윤진호 정형외과에

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랑나눔푸드마켓에 10kg 쌀 150포를 기증했다. 이날 윤진호 원장은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기부활동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식품기부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달 18일에는 유원팜프카(대표 원석철)와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 방과후반 아이들의 따뜻한 식품기부가 이어졌다. 원석철 대표는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50만원 상당의 카레를 기부했다.

이어 아라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손수 모은 장터 수익금으로 100만원 상당의 쌀 200kg과 참치통조림 200개를 기탁했다. 기탁에 참여한 아라어린이집 방과후반 아이들은 직접 모은 수익금이 어려운 어른 신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매우 뿌

듯하다고 밝혔다.

제주대학생들로 구성된 아라복지관(관장 조성태) 소속 도담도담 봉사동아리(회장 유정은)도 지난달 23일 뜻깊은 식품기부에 마음을 보냈다. 아라복지관 나이트케어 아이들에게 한달에 한번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 중인 도담도담 봉사동아리는 12월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만든 감귤청을 제주시청 일대에서 판매한 수익금 40만원을 푸드마켓을 찾아와 기탁했다.

제주중학교(교장 진성필) 학생들도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생필품과 참치캔, 핫반, 라면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아 푸드마켓에 기부했다. 기부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집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며, 앞으로도 나눔활동을 더욱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카카오파머(대표 임지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도내 저소득층에게 굴나눔을 진행했다. 카카오파머에서 기부한 굴 400박스는 도내 지역아

동센터 10곳과 푸드마켓 2곳에 전해졌다. 카카오파머는 이번달에도 감귤 15,000박스를 전국푸드뱅크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한D&S(대표 이순섭)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행렬에 함께했다. 유한D&S는 12월 한달여 동안 1,460만원 상당의 기저귀, 휴지 등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렇게 지난 2015년 동안 모인 기부물품접수금액은 14억1000여만원 가량이다. 12월 한 달 간만 9800여만원 상당이 모아졌다. 식품기부활동이 갈수록 활발해 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기부할 수 있는 식품 및 물품들의 범위가 넓고, 기부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취식가능한 식품을 비롯해 모든 생활용품이 기부대상이다. 또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문하여 수령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 기부도 가능하다.

식품 및 물품기부를 원할 경우에는 사랑나눔푸드마켓(758-1377)이나 도광역푸드뱅크(702-3784)로 문의하면 된다.

2016년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새해와 협의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도내 각계 인사와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6. 1. 12(화) 11:00~13:00
- 장소 : 본회 회관(2층) 삼다수홀
- 내용 : 새해인사말씀, 기념사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참가자 교례
경품추첨
오찬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오시는 길